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판교도토리묵축제 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 도복희 기자 | ☎ 승인 2025.10.19 13:41

은퇴 농업인 안정적 노후 지원·청년농 영농기반 확충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직원들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사진 도복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세영)는 지난 17일 판교도토리묵 축제장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돕고,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천지사 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요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농지이양 관련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원활히 해 농업 구조개선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관련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1577-7770) 또는 서천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